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'23.10.04, 한-EU연구협력센터>

ㅇ 스페인 의장국, 유럽 연구 인프라 관련 테네리페 선언 발표(9.25)

- 스페인은 지난 9월 25일~26일 테네리페 과학기술 공원에서 개최된 '연구 인프라의 글로벌 측면 및 지속가능성' 컨퍼런스에서 유럽의 연구 인프라 보급을 개선하기 위한 '테네리페 선언'을 발표

ㅇ 집행위, 4가지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위험 평가 수행 권고(10.3)

- 집행위 권고는 급진적인 기술적·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잠재성, 군사적 용도로 전환될 위험, 인권 침해 위험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된 10가지 핵심 기술 분야를 제시
- 그중에서도 집행위는 기술 보안 및 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가장 민감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4가지 기술 분야를 선정
 - (첨단 반도체 기술) 마이크로 전자공학, 포토닉스, 고주파 칩, 반도체 제조 장비
 - (인공지능 기술) 고성능 컴퓨팅,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, 데이터 분석, 컴퓨터 비전, 언어 처리, 객체 인식
 - (양자 기술) 양자 컴퓨팅, 양자 암호화, 양자 통신, 양자 센싱 및 레이더
 - (생명공학 기술) 유전자 변형 기술, 새로운 게놈 기술, 유전자 구동, 합성 생물학
- 집행위는 전문가 포럼을 통해 회원국과 협력하여 올해 말까지 네 가지 기술 부문에 대한 첫 번째 위험 평가를 개시할 예정

o 유럽의원(MEP), '24년도 Horizon Europe 예산 증액 요구(10.3)

-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가 제안한 '24년 예산에 1억 4천만 유로를 추가할 것을 요구
- 유럽의회 예산위원회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많은 프로젝트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HE 신청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언급
- 이들은 추가 자금을 필라2의 보건, 문화, 기후 클러스터를 비롯하여 필라1의 유럽 연구위원회(ERC), 마리퀴리 프로그램(MSCA)에 투입할 계획
- ※ 예산위원회는 또한 EU 이사회가 협상 입장에서 삭감시킨 모든 부문에 대한 예산을 집행위의 원래 제안 수준으로 복원
- (기타) ▲집행위, '디지털 10년(Digital Decade)' 정책 첫 현황 보고서 발간(9.27)
 (보고서) (factsheet/요약본) ▲ERC 연구원 2명, 2023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(10.3)
 ▲글로벌혁신지수(GII) 2023 공개 ··· 대한민국 10위(9.27) ▲범유럽 디지털 인프라 '암 이미지 유럽 플랫폼' 출시(9.29) ▲영국독일, 청정 수소 파트너십 발표(9.28)